

## 영유아기 자녀가 있는 아버지의 전통적인 성역할태도와 아버지가 인식한 어머니 문지기 역할의 관계: 아버지 우울의 매개효과\*

이 슬 기<sup>1)</sup>      유 성 경<sup>†</sup>      방 지 원<sup>2)</sup>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기 자녀가 있는 아버지의 전통적인 성역할태도와 아버지가 인식한 어머니 문지기 역할의 관계에서 아버지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만 7세 이하 자녀가 있는 기혼 남성 366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Mplus 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일수록 아버지의 우울이 증가하였고, 어머니 문단기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였으며, 어머니 문열기에 대한 인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 문단기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였고, 어머니 문열기에 대한 인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스트래핑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아버지의 전통적인 성역할태도와 아버지가 인식한 어머니 문지기 역할의 관계를 아버지의 우울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공동양육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을 확인함으로써 어머니 문지기 역할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아버지, 전통적인 성역할태도, 우울, 어머니 문지기 역할

\* 본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2A03041362).

1)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생

† 교신저자: 유성경,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037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Tel: 02-3277-3911, E-mail: skyoo@ewha.ac.kr

2)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박사수료생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공동육아 문화가 확산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역할을 가계 부양자와 양육자로 분리하는 성별 분업은 현대 사회에서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로 인식되고 있다.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2020)에 따르면,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성역할 구분에 대하여 여성의 79.2%와 남성의 66.2%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로의 변화를 보여준다. 여성에 비해 남성의 응답 비율이 낮으나, 남성과 여성의 응답 차이가 2014년 15.1%에서 2019년 13.0%로 감소하여 평등한 성역할태도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가 좁혀지는 양상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문화 형성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보육기관의 휴원 및 등교 제한 조치에 따라 부모의 돌봄 부담이 증가한 현재 사회적 맥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2021)에 따르면,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유지하며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되었던 2020년 12월~2021년 2월 동안 맞벌이 아버지의 하루 평균 자녀 돌봄 시간이 코로나 이전 3.1시간에서 코로나 이후 3.7시간으로 18.4% 증가하였으며, 외벌이 아버지도 2.5시간에서 2.9시간으로 19.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근무와 유연근무, 육아휴직 제도의 활용과 경기 침체로 인한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로 인하여 아버지의 양육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육아휴직통계(2020)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육아휴직자 중 아버지는 19.9%에 해당하며, 이는 2010년 2.7%와 비교하였을 때 17.2%가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부부가 함께하는 공동육아의 현실적 필요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

화 제도의 도입, 가족 내 성역할 불균형과 가부장적 가족문화에 대한 사회적 담론, 그리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가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아버지 양육은 더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 양육과 관련된 주요 변인들 간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고, 부부 공동양육 경험에 실제적 함의를 마련하는 탐색적 연구의 수행이 절실한 시점이다.

어머니 문지기 역할(Maternal gatekeeping)은 아버지 양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어머니 문지기 역할은 가족 내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어머니의 전통적인 성역할 신념을 반영하는 개념으로(Allen & Hawkins, 1999), 아버지의 양육을 장려하는 행동인 어머니 문열기(Gate opening)와 아버지의 양육을 방해하는 행동인 어머니 문닫기(Gate closing)로 구성된다. 어머니 문지기 역할은 주로 아버지의 양육을 예측하거나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연구되어 왔으며(Thomas & Holmes, 2020), 아버지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나 빈도와 같이 아버지 양육의 양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어머니 문지기 역할의 예측변인으로 어머니의 성역할 태도, 아버지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 사회적 지지, 결혼 만족도, 취업 여부와 근로시간, 우울, 불안, 신경증, 완벽주의와 같은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탐구가 연구의 중심을 이루었기 때문에(유희숙, 이유미, 2017; 조숙인, 2010; Kulik & Tsoref, 2010; Schoppe-Sullivan, Altenburger, Lee, Bower, & Kamp Dush, 2015), 어머니의 문지기 행동에 기여하는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Feinberg(2003)는 부모의 심리적 기능이 공동양육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하였으며, 공동양육에서 어머니

문지기 역할의 메커니즘을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을 함께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Ju, Liang, & Bian, 2021; Schoppe-Sullivan & Fagan, 2020). 국내에서는 양육 효능감, 부모역할신념, 양육스트레스, 공감능력이 어머니 문지기 역할을 예측하는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으로 연구된 바 있다(강수경, 김해미, 정미라, 2019; 양선희, 2018; 이방실, 강수경, 정미라, 2017; 조윤진, 2017). 최근에는 공동양육이라는 이자관계의 상호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공동양육 관계의 질을 반영하는 지표로 사용되며(Schoppe-Sullivan & Altenburger, 2019), Olsavsky, Yan, Schoppe-Sullivan와 Kamp Dush(2019)의 연구 결과,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공동양육 관계에서 친밀감을 덜 느끼는 정서경험 및 부부관계에 대한 아버지의 부적응적 인식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져 이러한 이론적 접근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인식한 어머니 문지기 역할과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의 관계를 탐색하여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어머니 문지기 역할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으로 고려한 첫 번째 변인은 우울이다. 부부는 부모가 됨에 따라 배우자와의 관계가 전환되고 양육자라는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요구 받는다. 부모는 수면 부족, 스트레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우울의 위험이 있고(Trahan & Shafer, 2019), 우울은 관계의 질과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동양육자로서의 협력과 효율적인 상호 돌봄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아버지의 우울은 자녀의 발달과 가족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국내외 다수 연구가 수행되

었으며, 선행연구들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인다(권정혜, 임승락, 1998; 여종일, 2015; 장진영, 김진희, 김영희, 2011; Kane & Garber, 2004). 아버지 양육 연구에서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에 따라 아버지의 우울과 공동양육 간 관계를 조명하는 연구가 국외에서 점차 주목을 받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전무하다. 국외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우울 증상이 있는 아버지는 공동양육 관계에서 배우자 지지를 낮게 인식하고 배우자와의 갈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Bronte-Tinkew et al., 2007; Isacco, Garfield, & Rogers, 2010; Williams, 2018), 아버지의 우울이 높은 공동양육 갈등에 영향을 주었다(Cabrera, Scott, Fagan, Steward-Streng, & Chien, 2012). 뿐만 아니라, 우울한 아버지는 공동양육자로서 역할 뿐 아니라 친밀한 파트너로서도 철수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Williams, 2018), 우울이 온정적인 태도나 민감성과 같은 정서적 가용성을 떨어뜨리고 협력적인 행동을 저해한다는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Blumberg & Hokanson, 1983). 유승현 등(2016)의 연구에서 남편의 우울 증상과 아내가 인식한 가족 의사소통 간 부적 관계를 나타낸 국내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아버지의 우울은 양육 상황에서 긍정적인 관여, 안정적인 구조 제공, 온정적인 돌봄과 낮은 관련이 있고, 처벌적인 양육이나 갈등과 같은 적대적인 반응과 높은 관련이 있다(Pleck, 1997; Shafer, Fielding, & Holmes, 2019). 따라서 어머니는 우울한 양육자에게서 자녀가 받을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머니 문열기 행동으로 아버지 양육을 장려하지 않고 어머니 문닫기 행동을 보일 수 있다(Austin, Pruett, Kirkpatrick, Flens, & Gould,

2013; Burke, 2003). 또한, 우울은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증상으로 표현되며 남성의 우울은 과도한 음주나 폭력, 분노와 같은 외현화 증상으로 드러나는 면이 있으므로(Addis, 2008),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은 자녀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의 측면을 갖는다. Austin 등(2013)은 이러한 어머니의 행동을 보호적인 문지기(Protective gatekeeping)로 개념화하였다. 대인관계 측면에서 우울은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을 어렵게 하고,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데 영향을 미침으로써 상대방에게서 긍정적인 반응보다 부정적인 반응을 받고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할 가능성을 높인다(김수진, 김수현, 1997; Beck & Bredemeier, 2016).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문열기 행동과 문닫기 행동이 서로 독립된 개념이라는 제언에 따라(조운진, 임인혜, 2016), 아버지가 인식한 어머니의 문열기와 문닫기를 각각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아버지의 우울과 관계를 살펴볼 것이며, 아버지의 우울이 아버지가 인식한 어머니 문열기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아버지가 인식한 어머니 문닫기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으로 고려한 두 번째 변인은 전통적인 성역할태도이다.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일과 가정으로 분리하는 태도를 말하며, 양육, 가사와 같은 집안의 일은 여성의 몫으로 분류하여 어머니의 모성을 강조하고 사회의 일은 남성의 몫으로 분류하여 아버지의 생계부양자 역할을 강조한다(Pleck, 1988).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는 남성의 우울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이며, 선행 연구들에서 전통적인 성역할태도와 남성의 우울 간 일관된 정적 관계를 확인하였다(김지현, 최희철, 2007; 송리라, 이민아, 2012; 제연화,

심은정, 2015; 하문선, 김지현, 2016). Eisler와 Skidmore(1987), O'Neil(1981), Pleck(1995)은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고수하는 남성이 성역할 규범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회화되면서 발달적, 정신적 긴장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불일치 긴장과 갈등이 우울과 같은 부정정서를 유발한다고 보았다.

최근에는 아버지의 남성성으로 아버지 양육을 설명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Pleck(2010)은 아버지 양육-남성성 모델(Fatherhood-Masculinity Model)을 통해 아버지의 남성성이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과 양육행동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화하였고, 아버지의 양육 메커니즘을 이해할 때 남성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젠더화된 반응 이론(Gendered Responding Framework)은 우울 뿐 아니라 남성이 부정 정서에 반응하는 방식에 남성성이 영향을 끼친다고 가정하는데, 자신의 성역할 태도와 남성성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우울에 반응한다고 보았다(Addis, 2008; Price, Gregg, Smith, & Fiske, 2018). 선행 연구에서 아버지가 전통적인 남성성을 추구할수록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표현적인 양육보다는 가혹한 처벌 형태의 훈육을 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Petts, Shafer, & Essing, 2018), 우울과 양육방식의 관계에서 전통적 남성성의 유의한 조절효과를 밝힌 경험적 연구 결과는 이를 지지한다(Shafer et al., 2019). 따라서 아버지가 전통적인 성역할태도에 덜 동화되어 있을수록 돌봄, 정서적 지지, 온정적 양육 등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이라기보다 어머니의 역할로 여겨지는 양육행동을 수용하는 인지적 자원이 높을 것이다. 반면, 전통적인 성역할태도가 높을수록 자녀를 돌보면서 배우자와 협력하고 조율하는 공동양육자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스트

레스와 갈등이 우울에 위험요인이 될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전통적인 성역할태도가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아버지의 전통적인 성역할태도와 어머니 문지기 역할 간 관계는 국내외에서 소수의 연구만이 수행되었다. 아버지의 전통적인 성역할태도와 어머니가 보고한 어머니 문지기 역할 간 관련이 없거나(Schoppe-Sullivan, Shafer, Olofson, & Kamp Dush, 2021), 아버지의 성평등한 태도가 협력적인 공동양육 관계와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으나, 어머니가 공동양육 갈등을 덜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가 전통적인 남성성이 낮을 때 배우자와 경쟁적 관계를 취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Kuo, Volling, & Gonzalez, 2017). 박선주, 강민주(2017)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근대적인 성역할태도와 양육행동 관계에서 어머니가 문열기 행동의 조절효과가 나타났고, 조운진(2017)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근대적인 성역할태도와 양육행동 관계에서 어머니 문닫기 행동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처럼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어머니 문지기 역할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적을 뿐더러 선행연구들이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성역할태도가 어머니 문지기 역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어머니 문지기 역할 간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부모의 심리적 특성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 Kuo et al.(2017)의 제언 및 앞서 설명한 이론적 접근과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버지의 우울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아버지의 전통적인 성역할태도, 우울, 어머니 문지기 역할 간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

아버지의 전통적인 성역할태도와 어머니 문지기 역할 간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버지의 전통적인 성역할태도, 우울, 아버지가 인식한 어머니 문열기와 어머니 문닫기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버지의 전통적인 성역할태도와 아버지가 인식한 어머니 문열기 관계에서 아버지 우울의 매개효과가 유의한가?

연구문제 3. 아버지의 전통적인 성역할태도와 아버지가 인식한 어머니 문닫기 관계에서 아버지 우울의 매개효과가 유의한가?

## 방 법

###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만 7세 이하 자녀가 적어도 한 명 이상 있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 중에서 남성이 응답한 자료만을 사용하였다. 영유아기는 자녀 양육 및 부부의 공동양육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본 연구에서 자녀의 나이를 만 7세 이하로 규정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네이버, 다음)의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연구 참여자 모집 문건을 제시하고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를 안내하는 눈덩이 표집을 사용하여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자료에 대한 수집은 2021년 1월 5일 ~ 1월 29일까지 이루어졌다. 총 응답자 수는 371명이었으나, 결측치가 있는 자료를 제외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366명의 자료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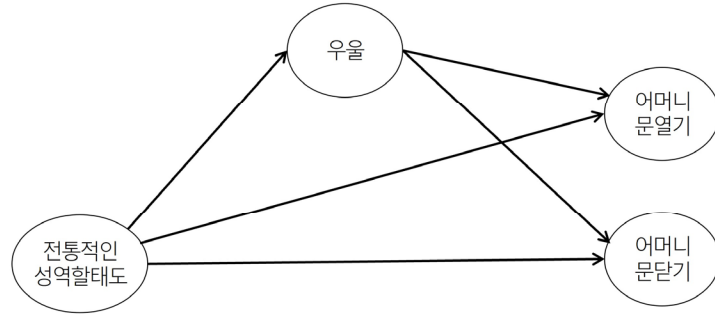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평균연령은 39.55세( $SD=3.55$ )로 30대 203명(55.5%), 40대 159명(43.4%), 50대 4명(1.1%)이었다. 자녀의 수는 1명이 210명(57.4%), 2명이 142명(38.8%), 3명이 14명(3.8%)이었다. 재직여부는 재직 357명(97.5%), 휴직(육아휴직, 질병휴직 등) 7명(1.9%), 퇴직 2명(0.6%)이었고, 고용형태는 정규직 328명(90.1%), 비정규직 27명(7.4%), 기타(자영업, 프리랜서 등) 9명(2.5%)이었다.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0시간 미만 40명(11.2%), 40시간-50시간 미만 210명(58.8%), 50시간-60시간 미만 78명(21.9%), 60시간 이상 29명(8.1%)이었다. 거주지를 살펴보면, 서울시 173명(47.3%), 경기도 105명(28.7%),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46명(12.6%), 경상도 15명(4.1%), 전라도 10명(2.7%), 강원도 7명(1.9%), 충청도 6명(1.6%), 세종시 4명(1.1%)이었다.

#### 측정 도구

##### 전통적인 성역할태도

연구 참여자의 성역할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Demaris와 Longmore(1996), 그리고 Kulik(1999)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강기연(2000)이

구성한 성역할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문항의 예로는 “남편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아내 자신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가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갖고 있는 반면, 점수가 낮을수록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7이었다.

##### 우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Radloff(1997)가 개발한 역학조사센터 우울증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국내에서 번안한 세 개의 척도를 바탕으로 전경규, 최상진, 양명창(2001)이 통합하여 개발 및 타당화한 통합적 한국판 CES-D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1주일동안 느낌과 행동을 0점(극히 드물다), 1점(가끔 있었다), 2점(자주 있었다), 3점(거의 대부분)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문항의 예로는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있다. 총점은 0점에서

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조맹제와 김계희(1993)는 지역사회 역학연구의 일차 선별도구로서 예민도를 95% 이상으로 하여 가음성률을 5% 이내로 하면서 지역사회 대상군에서 양성률을 25% 내외로 하는 21점을 최적 절단점(cutoff point)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4이었다.

### 어머니 문지기 역할

아버지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Van Egeren(2000)이 개발하고 Schoppe-Sullivan 등(2015)이 보완한 척도를 바탕으로 조운진과 임인혜(2016)가 개발 및 타당화한 한국판 어머니 문지기 역할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7문항으로 어머니 문열기 9문항, 어머니 문닫기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머니 문열기 문항은 아버지 양육을 격려하고 촉진하는 어머니의 태도를 측정하며, 문항의 예로는 “아내는 내가 아이와 단 둘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격려한다.”가 있다. 어머니 문닫기 문항은 아버지 양육을 방해하거나 비판하는 어머니의 태도를 측정하며, 문항의 예로는 “아내는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나의 행동이 맘에 들지 않을 때 화난 표정을 짓거나 눈을 흘킨다.”가 있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6점(매우 자주 한다)까지 6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며, 각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상황에서 아내가 그와 같은 반응을 자주 한다고 인식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9이었고, 어머니 문열기 .93, 어머니 문닫기 .87이었다.

###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3.0과 Mplus 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의 절차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측정 변인들의 경향성을 확인하고 정규성과 이상치를 검토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를 확인하였다. 둘째, 변수들 간 관계를 피어슨 적률 상관분석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구조방정식 모형 검정에 앞서 추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요인 알고리즘(factorial algorithm) 방법으로 측정 변인들의 문항묶음(item parceling)을 구성하였으며, Little, Rhemtulla, Gibson과 Schoemann(2013), 그리고 Matsunaga(2008)의 제안에 따라 3개의 문항묶음을 사용하였다. 넷째, 2단계 접근법(Anderson and Gerbing, 1988)에 따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모형의 적합도와 요인부하량을 확인하고, 구조모형의 적합도와 경로계수 및 간접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김수영, 2016). 모형의 적합도는 West, Taylor와 Wu(2012)의 제안에 따라 CFI, SRMR, RMSEA를 사용하였다. CFI가 .95이상, SRMR이 .08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하며(Hu & Bentler, 1999), RMSEA가 0.08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하였다(Browne & Cudeck, 1993). 다섯째,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고, 10,000개의 표본을 원자료(N=366)로부터 복원 추출하여 95% 신뢰구간에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매개효과는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김수영, 2016). 추정 방법으로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다.

## 결 과

###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연구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상관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통적인 성역할태도가 우울( $r=.17, p<.01$ ), 어머니 문단기( $r=.28, p<.01$ )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어머니 문열기( $r=-.31, p<.01$ )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우울은 어머니 문열기( $r=-.33, p<.01$ )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어머니 문단기( $r=.40, p<.01$ )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 문열기는 어머니 문단기( $r=-.42, p<.01$ )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측정변인들의 평균의 경향성을 살펴보면, 연구 참여자의 전통적인 성역할태도( $M=2.19, SD=.71$ )는 ‘보통이다(3점)’ 이하로 나타나 근대

적인 성역할태도에 가까운 경향을 보였으며, 어머니 문열기에 대한 인식( $M=4.24, SD=1.01$ )이 어머니 문단기에 대한 인식( $M=2.83, SD=.99$ )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우울은 평균 14.74, 표준편차 .9.73으로 나타났으며, 조맹제와 김계희(1993)의 제언에 따라 최적 절단점을 21점으로 하였을 때, 연구 참여자 중 94명(25.7%)이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맹제, 김계희(1993)의 연구에서 국내 지역사회 일반 인구의 우울감 평균이 14.91점으로 나타난 것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측정변수들의 왜도는 -.45에서 .93으로, 첨도는 -.87에서 .90으로 나타나, 왜도 및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아 다변량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Curran, West, & Finch, 1996).

### 측정모형 검정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측정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측정변인들의 상관계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N=366)

변인	1	2	3	4
1. 전통적인 성역할태도	1			
2. 우울	.17**	1		
3. 어머니 문열기	-.31**	-.33**	1	
4. 어머니 문단기	.28**	.40**	-.42**	1
평균	2.19	14.74	4.24	2.83
표준편차	.71	9.73	1.01	.99
왜도	.04	.93	-.45	.48
첨도	-.87	.90	-.19	.11

주. \*\*  $p<.01$



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df=48, N=366)=144.011$ 로  $p<.001$ 에서 유의하였으나 CFI=.973, SRMR=.043, RMSEA=.074로 나타나,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측정모형의 구인타당도를 살펴보면, 표준화된 요인부하 추정치가 .75~.94로 .70이상으로 나타나 수렴 타당도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Hair, Anderson, Tathan, & Black, 1992). 또한,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는 -.49~.44로 .90 이하로 나타나 변별 타당도의 수용 가능한 기

준을 충족하였다(Kline, 2011). 표준화된 요인부하 추정치와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는 모두  $p<.001$ 에서 유의하였다.

구조모형 검정

측정변수들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모형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 결과,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df=48, N=366)=144.018$ 로  $p<.001$ 에서 유의하였으나 CFI=.973,

표 2.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경로	B	S.E	C.R.	$\beta$
전통적인 성역할태도 → 우울	.141	.043	3.272**	.204
전통적인 성역할태도 → 어머니 문열기	-.479	.087	-5.504***	-.319
우울 → 어머니 문열기	-.685	.128	-5.364***	-.315
전통적인 성역할태도 → 어머니 문닫기	.323	.085	3.802***	.247
우울 → 어머니 문닫기	.751	.103	7.281***	.398

주. \*\*  $p<.01$ ,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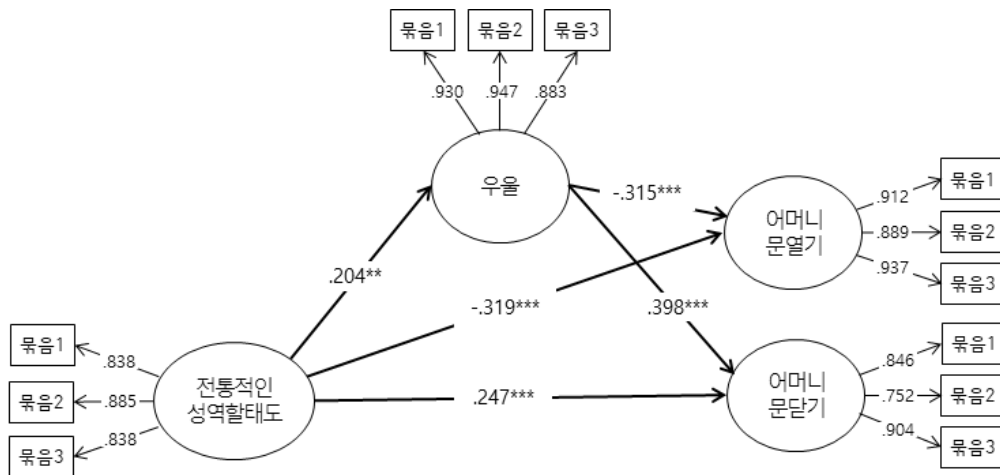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의 표준화 계수 추정치

주. \*\*  $p<.01$ , \*\*\*  $p<.001$

SRMR=.043, RMSEA=.074로 나타나, 구조모형이 자료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를 표 2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통적인 성역할태도가 우울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204, p<.01$ ). 또한 전통적인 성역할태도가 어머니 문열기에 대한 인식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319, p<.001$ ), 어머니 문닫기에 대한 인식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247, p<.001$ ). 우울은 어머니 문열기에 대한 인식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315, p<.001$ ), 어머니 문닫기에 대한 인식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398, p<.001$ ).

#### 매개효과 검증

아버지의 전통적인 성역할태도와 어머니 문지기 역할에 대한 인식을 아버지의 우울이 매개하는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아버지의 전통적인 성역할태도에서 우울을 거쳐 어머니 문열기에 대한 인식으로 가는 간접효과( $B=-.097, 95\% \text{ C.I.}=[-.165-.036]$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전통적인 성역할태도에서 우울을 거쳐 어머니 문닫기에 대한 인식으로 가는 간접효과( $B=.106, 95\% \text{ C.I.}=[.038-.185]$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자녀가 있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전통적인 성역할태도, 우울, 아버지가 인식한 어머니 문지기 역할 간 관계를 살펴보고, 아버지의 전통적인 성역할태도가 우울을 매개로 어머니 문지기 역할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일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가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일과 가정으로 구분하면서 아버지의 생계부양자 역할, 어머니의 양육자 역할을 강조할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의 전통적인 성역할태도에서 기인한 성역할 갈등과 우울 간 정적인 관계를 확인한 선행연구와 일관된 결과(김지현, 최희철, 2007; 박수애, 조은경, 2002; 송리라, 이민아, 2012; 제연화, 심은정, 2015; 최진영, 2020; 하문선, 김지현, 2016)이다. 남성

표 3. 연구모형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경로	B	S.E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전통적인 성역할태도 → 우울 → 어머니 문열기	-.097**	.034	-.165	-.036
전통적인 성역할태도 → 우울 → 어머니 문닫기	.106**	.038	.038	.185

주. \*\* $p<.01$

의 전통적인 성역할태도와 우울의 정적 관계는 Pleck(1995)의 성역할 긴장(gender role strain)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론에 따르면, 남성이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고수하면서 사회문화적으로 용인되는 남성 성역할 규범에 맞추어 제한적으로 사회화됨에 따라 성역할에 대한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발달적, 정신적 긴장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긴장이 우울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유발하며 남성의 적응적인 대처에 장애물을 만든다고 본다. 이와 유사한 이론적 근거로 O'neil(1982)의 성역할 갈등(gender role conflict), Eisler과 Skidmore(1987)의 남성 성역할 스트레스(masculine gender role stress), Mahalik et al.(2003)의 남성적 규범에 대한 순응(conformity to masculine norms)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이론들은 공통적으로 전통적 남성성이 우울을 비롯한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다수의 경험적 연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이주리, 송지원, 2020; Good, & Wood, 1995; Wong, Ho, Wang, & Miller, 2017). 이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역시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사회에서 고정된 성역할로 인해 부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지금까지는 가부장적인 문화가 여성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울을 유발하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가부장적 권력의 중심에 있는 남성의 적응과 심리적 영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보여주었다.

둘째, 아버지의 전통적인 성역할태도가 어머니 문열기에 대한 인식에 부적인 영향을 주고, 어머니 문닫기에 대한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일수록 자신의 양육행동에 대한 아내의 격려와 지지를 낮게 인식하고,

비판과 통제는 높게 인식함을 의미한다.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의 대인관계 자원으로써 기능함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전통적인 성역할태도가 부부 공동양육 관계의 질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임을 시사하며,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어머니 문지기에 대한 인식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근거를 제공하였다.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가 공동양육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국내 가부장제적 문화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부장적 가치관이 강한 아버지는 자신의 경제적 공급자 역할을 강조하면서 배우자와 협력적인 공동양육 수행에 요구되는 정서적, 대인관계적 자원이 협소하고 경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남성의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는 양육적이고(nurturing), 지지적이며(supportive), 동료애적인(companionate) 현대적 아버지로서 잠재력을 제한할 뿐 아니라 공동양육자 간 지지적인 관계 발달의 이행을 저해할 수 있다. 한국판 남성규범 척도를 사용하여 30, 40대 아버지의 잠재 프로파일을 분석한 이슬기와 유성경(2021)의 연구에서 여성에 대한 권력과 통제를 의미하는 힘과 통제요인이 유의하게 높은 집단에서 어머니 문닫기에 대한 인식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아버지의 전통적인 성역할태도가 낮을수록 공동양육자와 경쟁적 관계를 덜 취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Kuo et al., 2017) 및 아버지의 전통적 남성성이 불평등한 양육분담을 예측한 선행연구 결과(Petts et al. 2018)와 일맥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아버지의 우울은 어머니 문열기에 대한 인식에 부적인 영향을 주고, 어머니 문닫기에 대한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 상황에서 자신의 양육행동에 대한 아내의 격려와 지지를 낮게 인식하고, 아내의 비판과 통제는 높게 인식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우울이 공동양육 갈등을 높이고 협력적인 공동양육 관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난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며(Bronte-Tinkew et al., 2007; Isacco et al., 2010; Ju et al., 2021; Williams, 2018), 아버지의 우울로 인한 부정적 양육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어머니의 보호적 문지기 역할(protective gatekeeping)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가면화된 우울(masked depression)은 남성의 우울이 과도한 음주나 폭력, 분노와 같은 공격성, 위협행동을 비롯한 외현화 증상으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음을 설명하며, 선행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우울이 처벌적 양육과 높은 관련이 있고, 안정적인 구조 제공 및 온정적인 돌봄과 낮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Addis, 2008; Shafer et al., 2019). 국외에서는 보호적 문지기 역할의 동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양육자의 처벌적 양육, 약물 의존도, 정신장애, 자녀 학대 및 가정폭력과 관련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아버지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염려와 걱정을 보호적 문지기 역할의 동인으로 설명하였다(Austin et al., 2013; Zvara, Roger Mills-Koonce, Cox, & the Family Life Project Key Contributors, 2016). 이를 종합하였을 때, 양육자의 부정적이고 위협한 양육행동은 자녀에게 정서적, 신체적 위해를 가할 가능성과 이에 대한 어머니의 염려 및 걱정을 높이므로, 어머니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저지하고 비판하는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부정적 신호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할 가능성을 높이는

우울의 대인관계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김은정, 권정혜, 1998), 우울 증상이 공동양육 상황에서 배우자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을 낮추고 부정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아버지의 전통적인 성역할태도와 아버지가 인식한 어머니 문지기 역할의 관계에서 아버지 우울의 부분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아버지의 전통적인 성역할태도가 어머니 문지기 역할에 대한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아버지의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일수록 우울 증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자신의 양육행동에 대한 아내의 격려와 지지에 대한 인식을 낮추고, 비판과 통제에 대한 인식은 높인다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 남성성이 강할수록 아버지의 우울과 아버지가 인식한 어머니 문지기 간 정적으로 강한 관계를 확인한 연구결과(Thomas, & Holmes, 2020) 및 아버지의 우울과 아버지의 양육방식 간 관계에서 아버지의 전통적 남성성의 유의한 조절효과를 발견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맥한다고 볼 수 있다(Shafer et al., 2019).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전통적인 성역할태도와 우울이 각각 공동양육 관계의 질을 저해하는 요소일 뿐 아니라, 아버지의 전통적인 성역할태도가 우울 증상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을 통해 공동양육 관계의 질을 떨어뜨리는 데 부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므로 아버지의 전통적인 성역할태도와 우울의 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에 따른 상담 및 심리교육적 개입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전통적인 성역할태도가 공동양육 관계 및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고려할 때,

한국에서 남성, 아버지, 남편으로 살아가면서 학습해 온 성역할 규범을 탐색하고 내면화 및 사회화 과정을 성찰적으로 바라보는 과정과 이로 인하여 공동양육 상황에서 경험하는 개인내적, 대인관계적 갈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과정을 통해 자기개념과 경험 간 불일치를 해소하는 심리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버지가 부부 및 자녀와의 관계적 어려움을 보고하더라도 우울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심리평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아버지 양육에 대한 개입으로 양육 기술과 같은 정보제공에만 국한하지 않고, 아버지 양육의 질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어려움을 살피는 심리치료적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아버지의 우울은 아버지 정체성을 발휘하면서 경험되는 양육자로서의 가치감과 자신감을 저해하고, 협력적인 공동양육에 대한 긍정적 경험으로부터 형성되는 공동양육 효능감 및 긍정적 파트너십을 습득할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우울이 양육 장면에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우울감 해소를 돕는 중재적 개입이 제안된다.

셋째, 아버지의 정서에 대한 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상담의 중장기적 목표가 될 수 있다.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는 전통적 남성성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정서억제(emotional suppression)와 높은 관련이 있으며, 우울은 정서적 가용성(emotional availability)을 낮추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성역할태도와 우울은 정서를 인식하고, 수용하고, 표현하는 일련의 정서를 다루는 과정에 취약한 공통점을 가지므로, 성역할 규범에 대한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한 인지적 재구조화 및 공동양육 관계에서 정서 효능감 증진을 위한 상담적 개입이 제안된다.

아버지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수용하고, 표현함으로써 정서에 대한 효능감을 경험하는 훈습과정을 통해 긍정적 자녀 양육과 협력적 파트너십 형성을 돕는 대인관계적, 정서적 자원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 대상의 양육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에도 아버지의 정서적 자원을 개발하고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중재적 개입을 실행하는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조철애, 정영숙(2020)은 양육참여 뿐 아니라 아버지가 민주적 양육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양육의 질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제안하였으며, 국외에서는 우울을 예방하는 심리적 웰빙, 위험한 행동에 대한 통제력 증진, 공동양육 상황에서의 문제해결과 의사소통 등을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다 (Pruett, Pruett, Cowan, & Cowan, 2017).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을 변인으로 사용하여 어머니 문지기 역할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어머니 문지기 역할에 대한 탐색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주목을 받았으며, 아버지 양육의 양적인 측면에 대한 예측변인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전통적인 성역할태도와 우울이 아버지가 인식한 어머니 문지기 역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공동양육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을 확인하고, 어머니의 보호적 문지기 역할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부부의 공동양육 파트너십을 저해하는 심리적 요인을 발견함으로써 공동양육 관계에 중재하는 개입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버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심리지원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아버지의 전통적

인 성역할태도와 우울이 부부 공동양육 관계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심리교육 자료 개발을 기대한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응답자료만을 사용하였으나,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여 어머니 문지기 역할에 대한 역동을 보다 통합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공동양육은 이자관계의 상호성을 갖는 특성이 있으며, 어머니 문지기 역할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 수준이 어머니의 실제 행동 수준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한다면 아버지의 인식과 어머니의 실제 행동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태도의 단일요인 척도를 사용하였으나, 성역할 규범은 다차원적인 특성을 가지므로(Addis, Reigeluth & Schwab, 2016), 성역할 규범의 하위요인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일 수 있다. 국내 연구에서 한국판 남성규범 척도의 하위요인인 정서억제, 힘과 통제 요인은 어머니 문단기, 우울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남성 리더쉽과 가족부양요인은 우울과 부적 상관 및 어머니 문열기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우성범, 2017; 이슬기, 유성경, 2021).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전통적인 성역할태도와 우울, 어머니 문지기 역할의 구조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외요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강수경, 김해미, 정미라 (2019). 아버지가 인식

한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동양육과 양육 효능감의 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39(4), 175-194.

권정혜, 임승락 (1998). 우울증상이 부부간의 사소통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2), 17-31.

김수영 (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MPLUS 예제와 함께. 서울: 학지사.

김수진, 김수현 (1997). 우울한 대학생의 대인관계 패턴과 내적갈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409-441.

김은정, 권정혜 (1998). 우울증상과 관련된 대인관계 특성: 성인기 애착관계형성을 중심으로.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7(1), 139-153.

김지현, 최희철 (2007). 남성 성역할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의 매개효과: 도구성과 성역할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145-160.

박선주, 강민주 (2017). 맞벌이 가정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11(3), 87-111.

박수애, 조은경 (2002). 남성 성역할이 우리나라 남성들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8(2), 77-103.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2021). 코로나19와 돌봄경제: 지속가능한 돌봄사회로의 전환.

<https://ctms.or.kr/activities/2021-care-policy-conference> 에서 2021, 10, 23 인출.

송리라, 이민아 (2012). 성역할 태도와 우울: 성별·연령집단별 비교분석. 한국인구학, 35(3), 87-116.

- 양선희 (2018). 어머니의 문지기역할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여종일 (2015). 아버지의 우울증상 및 가족관계가 유아의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31(3), 333-351.
- 우성범 (2017). 한국 남성규범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승현, 권혁주, 김선희, 이정아, 선우성, 김영식, 김병수, 오한진, 김철민, 최희정, 황희진, 옥선화. (2016). 배우자의 우울증이 가족기능과 가족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16(1), 11-19.
- 유희숙, 이유미 (2017).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과 결혼만족도 및 완벽성향 간의 관계.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1(3), 283-307.
- 이방실, 강수경, 정미라 (2017). 아버지의 공감능력, 어머니 문지기역할, 부부갈등과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21(6), 437-457.
- 이슬기, 유성경 (2021). 남성적 규범과 아버지 신념에 따른 30, 40 대 아버지의 잠재 프로파일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1), 561-580.
- 이주리, 송지원 (2020). 아버지의 성역할가치감과 우울이 일-양육 갈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41(3), 1-12.
- 장진영, 김진희, 김영희 (2011). 아버지의 우울과 부부관계 및 자녀양육방식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42(2), 79-107.
- 재연화, 심은정 (2015). 2/30 대 남성의 성역할갈등과 우울의 관계: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4), 931-952.
- 조설애, 정영숙 (2020). 워킹맘의 일-가족 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남편의 민주적 자녀 양육으로 조절된 결혼 만족도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6(4), 435-456.
- 조숙인 (2010). 어머니의 취업 및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윤진 (2017).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부모 역할신념과 어머니 문지기역할, 부부 공동 양육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조윤진, 임인혜 (2016). 한국판 어머니 문지기 역할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육아지원연구, 11(2), 33-57.
- 최진영 (2020). 성역할갈등이 20 대 남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총, 23, 67-111.
- 통계청 (2020).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4161](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4161)에서 2021, 10, 21 인출.
- 통계청 (2020). 2019년 육아휴직통계 결과.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3/6/index.board?bmode=read&bSeq=&aSeq=386975&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3/6/index.board?bmode=read&bSeq=&aSeq=386975&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에서 2021, 10, 23 인출.
- 하문선, & 김지현. (2016). 남성 성역할갈등의 잠재집단과 남성성, 여성성, 우울, 자아존중감의 관계. 상담학연구, 17(5), 47-64.
- Addis, M. E. (2008). Gender and depression in men.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 15(3), 153-168.
- Addis, M. E., Reigeluth, C. S., & Schwab, J. R. (2016). Social norms, social construction, and the psychology of men and masculinity. In Y. J. Wong & S. R. Wester (Eds.), *APA handbook of men and masculinities* (pp. 81-104). Washington, DC, U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Good, G. E., & Wood, P. K. (1995). Male gender role conflict, depression, and help seeking: Do college men face double jeopardy?.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4*(1), 70-75.
- Allen, S. M., & Hawkins, A. J. (1999). Maternal gatekeeping: Mothers' beliefs and behaviors that inhibit greater father involvement in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1), 199-212.
- Austin, W. G., Pruett, M. K., Kirkpatrick, H. D., Flens, J. R., & Gould, J. W. (2013). Parental gatekeeping and child custody/child access evaluation: Part I: Conceptual framework, research, and application. *Family Court Review, 51*(3), 485-501.
- Barnett, R. C., & Hyde, J. S. (2001). Women, men, work, and family: An expansionist theory. *American psychologist, 56*(10), 781-796.
- Beck, A. T., & Bredemeier, K. (2016). A unified model of depression: Integrating clinical, cognitive, biological, and evolutionary perspectives. *Clinical Psychological Science, 4*(4), 596-619.
- Bronte-Tinkew, J., Moore, K. A., Matthews, G., & Carrano, J. (2007). Symptoms of major depression in a sample of fathers of infants: Sociodemographic correlates and links to father involvement. *Journal of family Issues, 28*(1), 61-99.
- Cabrera, N. J., Scott, M., Fagan, J., Steward Streng, N., & Chien, N. (2012). Coparenting and children's school readiness: A mediational model. *Family process, 51*(3), 307-324.
- Eisler, R. M., & Skidmore, J. R. (1987). Masculine gender role stress: Scale development and component factors in the appraisal of stressful situations. *Behavior modification, 11*(2), 123-136.
- Feinberg, M. E. (2003). The internal structure and ecological context of coparenting: A framework for research and intervention.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3*(2), 95-131.
- Feng, H., Xiu, L., & Ren, Y. (2019). The Effect of Sex and Gender Role Orientation on Coping among Americans and Chinese: Does "Secure" Matter?. *China Media Research, 15*(3), 18-32.
- Fincham, F. D., Beach, S. R., Harold, G. T., & Osborne, L. N. (1997). Marital satisfaction and depression: Different causal relationships for men and women?. *Psychological Science, 8*(5), 351-356.
- Isacco, A., Garfield, C. F., & Rogers, T. E. (2010). Correlates of coparental support among married and nonmarried fathers.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11*(4), 262-278.
- Ju, J., Liang, L., & Bian, Y. (2021). The coparenting relationship in Chinese families: The role of parental neuroticism and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38*(9), 2587-2608.
- Kane, P., & Garber, J. (2004). The relations among depression in fathers, children's



- psychopathology, and father - child conflict: A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4(3), 339-360.
- Kulik, L., & Tsoref, H. (2010). The entrance to the maternal garden: Environmental and personal variables that explain maternal gatekeeping. *Journal of Gender Studies*, 19(3), 263-277.
- Kuo, P. X., Volling, B. L., & Gonzalez, R. (2017). His, hers, or theirs? Coparenting after the birth of a second chil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1(6), 710-720.
- Mahalik, J. R., & Rochlen, A. B. (2006). Men's likely responses to clinical depression: What are they and do masculinity norms predict them?. *Sex Roles*, 55, 659-667.
- Olsavsky, A. L., Yan, J., Schoppe Sullivan, S. J., & Kamp Dush, C. M. (2020). New fathers' perceptions of dyadic adjustment: The roles of maternal gatekeeping and coparenting closeness. *Family process*, 59(2), 571-585.
- O'Neil, J. M. (1981). Patterns of gender role conflict and strain: Sexism and fear of femininity in men's lives.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0(4), 203-210.
- Petts, R. J., Shafer, K. M., & Essig, L. (2018). Does Adherence to Masculine Norms Shape Fathering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80(3), 704-720.
- Pleck, J. H. (1995). The gender role strain paradigm: An update. In R. F. Levant & W. S. Pollack (Eds.), *A new psychology of men* (pp. 11-32). New York, NY, US: Basic Books.
- Pleck, J. H. (1998). American fathering in historical perspective. In K. V. Hansen & A. I. Garey (Eds), *Families in the US: Kinship and domestic politics*, (pp. 351-361).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Price, E. C., Gregg, J. J., Smith, M. D., & Fiske, A. (2018). Masculine traits and depressive symptoms in older and younger men and women. *American journal of men's health*, 12(1), 19-29.
- Pruett, M. K., Pruett, K. D., Cowan, C. P., & Cowan, P. A. (2017). Enhancing paternal engagement in a coparenting paradigm.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11(4), 245-250.
- Schoppe-Sullivan, S. J., Altenburger, L. E., Lee, M. A., Bower, D. J., & Kamp Dush, C. M. (2015). Who are the gatekeepers? Predictors of maternal gatekeeping. *Parenting*, 15(3), 166-186.
- Schoppe-Sullivan, S. J., & Fagan, J. (2020). The evolution of fathering research in the 21st century: Persistent challenges, new direc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82(1), 175-197.
- Shafer, K., Fielding, B., & Holmes, E. K. (2019). Depression, masculine norm adherence, and fathering behavior. *Journal of family issues*, 40(1), 48-84.
- Thomas, C. R., & Holmes, E. K. (2020). Are father depression and masculinity associated with father perceptions of maternal gatekeeping?.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4(4), 490-495.
- Trahan, M. H., & Shafer, K. (2019). Paternal self-efficacy: A parenting resilience factor for fathers with depression. *Social Work Research*, 43(2), 101-114.

- Williams, D. T. (2018). Parental depression and cooperative coparenting: A longitudinal and dyadic approach. *Family relations*, 67(2), 253-269.
- Wong, Y. J., Ho, M. H. R., Wang, S. Y., & Miller, I. S. (2017). Meta-analys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nformity to masculine norms and mental health-related outcom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4(1), 80-93.
- Zvara, B. J., Roger Mills Koonce, W., Cox, M., & Family Life Project Key Contributors. (2016). Intimate partner violence, maternal gatekeeping, and child conduct problems. *Family relations*, 65(5), 647-660.
- 논문 투고일 : 2021. 12. 07  
1 차 심사일 : 2021. 12. 28  
게재 확정일 : 2022. 01. 21

##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s of Fathers with Young Children on Perceived Maternal Gatekeeping Roles: The Mediating Effect of Paternal Depression

Seul-Ki Lee

Sung-Kyung Yoo

Ji-Won Bang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paternal dep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s and the perceived maternal gatekeeping roles of fathers with young children.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by 366 married fathers who raises at least one child who is under seven years old. Mplus 7.0 was used to analyze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the result showed that higher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s relate to more depressive symptoms, higher perceptions of maternal gate closing and lower perceptions of maternal gate opening. Also, more depressive symptoms were related to higher perceptions of maternal gate closing and lower perceptions of maternal gate opening. Additionally, the partial mediation effects of depression were observ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s and maternal gate keeping. Based on the findings, implications for therapeutic interventions were discussed,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presented.

*Key words* : fathers,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s, depression, maternal gatekeeping